

돌하르방의 美術解剖學的 研究

文 基 善

《目 次》

I	序	論	1.	濟 州 牧
II	印 象, 年 代		2.	大 靜 縣
III	名 稱, 位 置		3.	旌 義 縣
IV	形 成, 機 能		VI	結 論
V	造 形 的 解 剖			

I 序 論

濟州道 印象을 獨特하게 풍겨주는 「돌하르방」은 本島의 主民들 보다는 外地人, 行旅者들의 눈에 더욱 끌리는 바이고 斯界의 學者들에게 대단한 關心을 불러 일으켜 韓國의 民俗美術品으로서 멋진 文化財의 價値가 있다고 입을 모아왔다.

이러한 「돌하르방」은 과연 언제 어떻게 만들어져 어느 위치에 어떠한 目的으로 세워졌는가 하는 點과 그 造形上의 工法은 李朝 社會를 背景으로 產出된 造形文化側面을 考察하고 美術解剖學的 視點이를 糾明하여 本島의 特有한 傳統 文化의 命脈을 漸進的으로 把握하여 그 骨格의 一面만이라도 于先的으로 調查 研究하여 學的인 基礎를 体系있게 마련하는데 뜻을 두고 있다.

II 印象, 年代

濟州 石像의 印象은 濟州民의 不屈의 氣相과 遠大한 希望을 바라보고 지나온 歷史를 간직한 나머지 來世의 如何한 곤경도 참고 나갈 듯한 進就的인 強健한 氣魄을 잘 表現한 石像이기도 하다.

세워진 樣式의 特性은 城門 밖에 二座 한 쌍으로 마주 보아 길목을 지켜 서서 守護的, 呪的인 機能을 다하는 것이다.

이의 表情은 머리엔 두툼한 감투, 야무진 눈망울은 부리 부리하여 千里 萬里를 쓰아볼 듯한 氣魄으로 部落으로 侵入하려는 雜人 또는 雜鬼을 쫓아버리는 相이다. 병거지를 쿵 눌러 쓴 머리와 이마(前頭), 皺眉와 커다란 눈이 濟州石像의 特徵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비교적 큼직한 코, 볼록 돌은 觀骨筋, 無表情한 頰筋, 나지막한 口輪筋에 一字로 뻗어 있다.

좁고 無親한 듯한 頰部에서 눈 가까이에 길게 매달린 귀, 全體의 顔面이 가우똥하게 약간 쳐들고, 미소 마저 함복 담은 모습은 볼수록 보는 사람에게 썩 익살스런 表情을 느끼게 하는 것이 濟州石像의 印象이다.

고르지 않은 어깨에 動勢를 담아 할 터이면 해보라는 듯 거드름 피우는 姿勢의 왼쪽이나 오른쪽 어깨를 치켜 올린 態度는 또한 이 石像이 지닌 멋이라 할 것이다.

손은 치켜올린 어깨쪽에는 腹部 上端에 얹었고 처진 어깨쪽 손은 腹部에 주먹을 불끈 쥐듯, 금시 不義를 보면 한 주먹 할 듯한 긴장감 마저 담겨져 있다.

이렇듯이 강직하기도하고 溫柔하기도 하고, 명칭하기도한 石像들의 多樣한 表情들은 諧謔的으로 한 石像에 담아 지니고 있는 점은 온 世界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獨特한 濟州 固有의 郷土色을 지닌 貴重한 文化遺産이라 아니할 수 없다.

石像의 생김새는 모두 비슷하여 머리엔 감투, 길고 좁은 이마, 부리 부리하게 부라린 눈, 자루병(長頸瓶)같은 코, 의지적으로 다문 입술, 비뚤어진 어깨, 두 손은 배의 위 아래로 모여 언제나 위엄있게 묵중하게 서서 우리 고장을 지키고 있다.

三縣城石像比較表

(크기 비교)

縣 別	區 分	全 長	가 슴 넓 이	腹 最 長 徑	基 石
濟 州 市		187.58	53.90	65	10개
大 靜 旌		134.86	33.63	54.63	無
	旌 義	141.83	27.54	49.08	4개

翁仲石이 荆建年代는 우선 濟州 三縣城의 構築 年代를 밝히고 다음 어떠한 動機로 만들어졌는지 考究하여 본다.

一四一六年(太宗十六年) 丙申에 安撫使 吳湜이 濟州 東西地遠 難於防禦함으로 啓請하여 山南을 나누어 兩縣을 세우니 東을 旌義라 하고 西를 大靜이라 하여 濟州牧과 더불어 三縣을 分割 統治하기 始作하였다.

大靜은 其 二年 後 一四一八年 縣監 俞信에 依하여 縣城이 이루어지니 城의 주위가 二千八百餘 尺이고 높이가 十尺이나 되었다.

旌義縣은 一四二三年(世宗 五年) 癸卯에 現位置로 옮겨 縣城을 築造하니 그 둘레는 三千十三尺이고 높이는 八尺이나 되었다.

其後 三百餘年이나 지난 一七五四年(英祖 三十年) 甲戌에 牧使 金夢奎 設翁仲石 於城門外 란 記錄을 봐서 濟州牧城 城門外에 同年 陰 一月에서 十月末 어간에 이 「우석목」이 세워졌음을 알 수 있고(古蹟名勝編) 뒤이어 大靜, 旌義縣城도 세워 놓았으나 濟州牧城의 「우석목」과 같이 위엄스러운 표정이나 重厚한 感이 缺如되어 全体 身長이 아주 작고 拙하다 할 수 있다.

이 石像들은 모두 石多의 巖 濟州 玄武岩으로 만들어져 粗野하고 稍稍 크고 작은 氣空이 많이 들어간 石質로 이루어져서 더욱 純朴한 맛을 자아내고 있어 어느面으로나 제주도란 특정한 地域에만 한정된 造形美術 彫刻物이라 할 수 있고 同時 世界속의 獨特한 내고장의 民俗美術品이라 자랑할 수 있다.

이 石像은 道內 세 地域 即 (李朝時代 濟州牧城) 現在 濟州市街와 大靜縣城이었던 現 大靜邑 仁城里(대정고을)와 旌義縣城이었던 現 表善面 城邑里(정의고을)에 現在 있는 石像의 數는 都合 四十五座가 남아있어서 西紀 一九七一年 八月 二十六日字 濟州道 地方文化財 民俗資料 第二號로 提定 保護되고 있다.

Ⅱ 名稱, 位置

濟州石像의 名稱은 우석목, 무석목, 벽수머리, 돌하르방, 돌영감, 守門將, 將軍石, 童子石, 翁仲石, 望柱石 等 그 名稱이 多樣하여 通俗的인 이름은 없는 편이다.

「우석목, 무석목」은 濟州市에서, 「무석목, 무성목」은 表善·大靜에서, 「벽수머리」도 表善과 大靜에서, 「돌하르방」은 三縣이 다같이 呼稱되고, 「돌영감」은 大靜에서 가끔 쓰여지고, 「守門將」은 共히 가끔 쓰는 말이고, 「將軍石」은 大靜의 一部에서 呼稱되는 말로서 墓所의 石物 武石人의 別稱을 引用한 것이라 一般性이 전혀 없다.

「童子石」도 濟州市에서 가끔 쓰이는 말이나 위와 같고 「翁仲石」은 耽羅誌 等の 文獻과 儒學者사이에 쓰이고, 「望柱石」은 濟州市에서 墓所의 지기로 봐서 쓰여진 呼稱이나 이도 一般性이 없다.

그 중 가장 많이 쓰이는 名稱으로는 「돌하르방」으로 濟州 道처에서 어린이들을 비롯한 民間에서 適用되는 말로 그 뜻은 돌할아버지란 濟州方言으로 俗稱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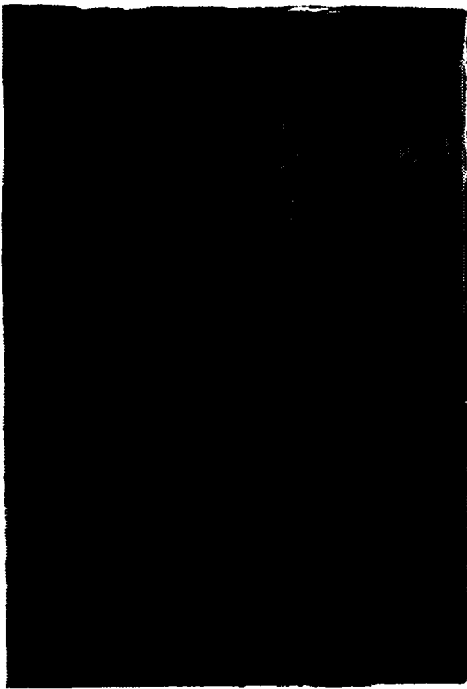
「벽수머리」는 旌義·大靜에서 一部 쓰일 뿐이고 本土의 南部地方에서 장승을 대체로 「벽수」라고 하는데 因由가 있는 名稱이다.

「두릉머리」大靜에서 極少數로 쓰여지는 名稱으로 方言에 뿌이 닿아진 소를 두릉머리라 하

였고 玄容駿氏는 「우석목」을 複合名詞로 보아 〈우+석목〉이나 〈우석+목〉의 語彙論的 說明을 다음과같이 論述하고 있다. 손목, 발목, 병목 등 人体나 物体의 가는 部分 길목, 아랫목 등 空間의 좁은 部分과 훈목, 대목, 목다리 등 時間的인 고비를 指稱하는 목이 있으니 이것은 石像의 頭像, 胸像 사이에 목을 指稱하는 呼稱일까하나 이도 一般性이 없는 이름이다.

「우석목」도 「돌하르방」 못지않게 가장 一般的으로 通用되는 名稱으로 보아진다. 그러므로 「우석목」이 가장 代表的이요, 固有한 名칭으로 보는바를 類이 가늘고 중요한 點을 意識해서 派生된 것이겠는데 이 石像에는 그러한 뜻을 結付될 수 없겠다.

그러므로 不得이 漢字語로 볼 수 밖에 없다. 그래서 〈偶石+木〉으로 보는 理由를 石製인 像인데도 불구하고 木字를 붙인 뜻을 상기해보면 濟州三縣城 石像을 氏는 정주목과 비교하여보고 돌로 울타리를 두르고 그 出入口에 大門을 設置하는 대신에 左右에 구멍을 뚫은 기둥 정주(打柱)를 세우고 굵고 긴 橫木을 兩 구멍에 끼워 걸쳐 牛馬나 外人의 出入을 막았던 「정주목」은 원래 나무로 만들어졌던 것이다.



〈寫眞 1〉

이 「정주목」이 後에 石製化했다더라도 모두 정주목이라 하고 있다. 그러므로 偶石에도 木이 붙음과 같다고 하였다.

다음은 偶石에 붙은 蛇足인 듯한 木의 問題는 石像의 本來的 構造나 機能이 정주목 그것이 있거나 類似한 것으로 推斷하는 것으로 後에 石像으로 彫刻하여 改建된 것을 漢學者的 官僚의 名稱으로 「偶石」이라 불렀겠으나 本來的 「정주목」적인 意味를 包括해서 表現하려는 言象心理가 정주목의 〈—목〉 우석에 接尾하여 「우석목」이란 名稱이 불려져 내려왔던 것으로 짐작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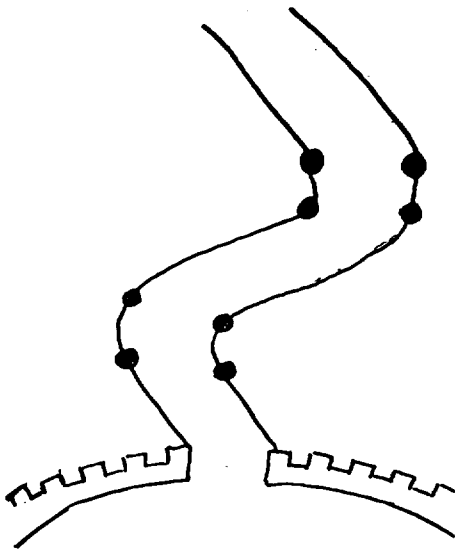
原位置를 考究함에는 東門通城址(濟州測候所南쪽)에 西紀 1950年代까지 남았던 이 돌하르방의 原位置는 基石이 그대로 남아있고 石像은 서로 相對로하여, 한 組, 한 組가 對稱되게 잘 놓여있다.

이 東門의 石像 놓임새를 살펴보면 城門에서 부터 約 五十餘步 떨어진 地点 進入路까지는 路幅이 約 三m에 達하는 S字形 少路를 이루어 直進할 수 없게 구불 구불 굽이돌아 들어오게 되어졌다.

이 S字形 少路에 이 石像 四個가 一組가 되고 二個는 一雙이 되어 꼬불 꼬불한 굽이에 對稱지어 서로 마주보게 向하여 二雙 四座를 定置시켰고 또 八十餘步 떨어진 곳(굽이)에 다시 二雙 四座가 놓여졌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東門通城址 進入路에서 그 石像의 놓임새가 밝혀진 바로는 濟州牧城 一箇門에는 八座의 石像이 놓여졌음을 알 수 있다.

또 濟州城 西門은 井門川 東 陳城洞(무근성)과 새성안(洞名) 近處에 S形 골목 자취가 있어 西門이었음을 알 수가 있다.



〈圖表 1〉

다시 濟州城 南門은 俗稱 南門通 現남문로 타리 밑 우물통 골목이 제주성 남문 자취였음을 알 수 있다.

濟州城 北門은 山底泉(산저물) 북쪽 골목도 進入路임을 알 수 있어 濟州城은 東·西·南·北 四門이 있었던 것으로 推斷하여 濟州牧城에는 八座式임으로 都合 三十二座가 濟州牧城에는 있었어야 할 것이 아니냐 한다.

그러한데 現在 濟州市에는 觀德亭 前庭에 四座, 그 後園에 二座, 三姓祠 入口 乾始門前에 四座, 濟州大學校庭에 四座, 濟州放送局 玄關에 二座, 濟州市廳에 二座, 濟州空港 入口에 二座, 高永璣氏 後園에 一座 景福宮內 民俗館에 移建 二座, 都合 二十三座는 其數가 確實하다.

그러나 一九五九年 玄容駿氏 調査로는 觀德亭에 六座, 三姓祠에 四座, KAL호텔 남쪽 길에 二座, 南門 우물통 골목에 一座, 東門로타리 北側 선일전재(前三泉書堂) 자리에 四座, 濟州測候所 南側 濟州城 東門址에 八座, 都合 二十五座로 되어 元來 三十二座로 보면 結局 七座가 없어져 있고 一九七二年 金榮教氏 調査 後로는 二十三座가 남아 있는 셈이다.

이 濟州牧城에 四門이었음을 考究할 수 있음은 一七八〇年(正祖 四年) 庚子에 牧使 金永璣이 城中에 避水患이 있을 것을 염려하여 間城을 築하고 東에는 延祥門, 西에는 虎樓, 南에는 定遠樓, 北에는 北水口門을 두니 四門이고 內城에는 嘉樂泉의 蘇幾門과 山底泉의 重仁門을 두어 六門이나 城內外를 出入하는 門은 東·西·南·北 四門으로 石像數는 三十二座가 濟州牧城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大靜縣城(地方文化財 第十二號)은 一四一八年(太宗 十八年) 당시 縣監 俞信에 依하여 築城 그 城周가 二千八百餘尺, 高十餘尺이라 밝혀졌고 또 大靜縣城은 一四一六年(太宗 十六年) 丙申 世宗實錄 地理志 全羅道 大靜縣條에 縣監이 始置하니 石城周는 一一七九步 許 이고 烽火四處이다 라고도 되어있어 築城年代가 文獻上으로 밝혀져 있고 그 城門은 東·西·南三門에 各各 四座씩 都合 十二座의 石像이 남아 있다.

그러나 只今の 現位置는 大靜城 西門 址周邊에 四座, 保城國校에 三座, 南門址에 四座, 東門址에 一座로 都合 十二座는 그 位置만이 다를 뿐이다.

旌義縣城(一四二三年 世宗五年)에 移築城하고 그 城周가 三千十三尺이고 高가 八尺인 이 城은 東·西·南門을 두어 各各 四座式 都合 十二座가 그대로 남아있다.

이로써 石像數는 濟州牧城에 二十三座 大靜縣城에 十二座, 旌義縣城에 十二座, 合四十七座가 남아 있는 편이다.

이렇듯 濟州三縣의 石像 元位置와 現在 位置의 다른點은 淡水契編 耽羅誌에 翁中石은 濟州 邑城 東·西·南 三門 外에 在하였고 金夢奎牧使가 荆建한 바인데 이 三門이 毀撤에 因하여 二座는 觀德亭 前에 二座는 三姓祠 入口에 移建하더라는 記錄 등으로봐서 東門을 除外한 三門 撤廢로 가까운 거리의 名所에 移建하여졌음을 짐작하게 한다.

IV 形成, 機能

이 石像의 形成 過程을 상기하여 보면 陸地部의 장승과 흡사하나 頭部, 頸部, 肩部, 胸部, 上腕, 下腕, 手, 腹部에 이르기까지 人體의 軀體를 解剖學的으로 研究하여 장승보다도 더 發展的인 濟州 特有的 彫刻像으로 만들어 놓았던 것이 아닌가 한다.

장승은 陸地 部落 入口의 界(村里의 巫祭式村祭를 모시던 언덕바지) 近處에 長石과 天下大將軍, 地下大將軍 또는 上元大將軍, 下元大將軍 등을 쓰거나, 새겨 세운 二本의 木長柱이다.

이 길다란 木長柱는 上部에는 人面을 새기고 下部는 原木 그대로 表面에 위와 같은 글을 새기거나 써 넣는 木偶로서 村落에 들어오는 凶氣나 病魔를 防禦할 目的으로 세운 防邪 人面 木長柱라 할 수 있다.

濟州市 健入洞(山底泉上)과 龍潭洞(龍淵東畔)의 東西 兩 彌勒의 形態와도 흡사하므로 어떠한 關係를 맺고 있는지 推究하여본다.

이 彌勒은 陰陽石의 生殖神化한 것이라 傳해지고 있고 이 곳의 學者들은 뜻을 모아 「우석록」에서 傳播되었거나 混淆되었을 것이라 보고 있다.

이들 뒷받침할 만한 統營의 石製 장승은 濟州의 石像과 그 形態가 아주 비슷하여 다르다는

點은 눌러 쓴 帽子는 이곳의 감투가 아니고 탕진 形이고 입가에 犬齒 程度가 다르다 할 수 있고 그 外로는 눈의 印像이나 身部가 비슷하여 濟州와 統營은 海路로는 가장 가까운 近距離이고 石長柱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았다 할 수 없다.

이 濟州石像은 境界標的, 境界守護的, 禁標的, 呪的인 機能을 多分히 지니고 있는 우석복은 英祖朝 防禦使 金夢奎가 장승의 貌樣과 機能을 研究하여 「정주목」과 「장승」을 複合한 濟州石像 「우석복」을 創案하여 刻工으로 하여금 製作토록 命令하여 만들어졌던 것으로 본다.

이러한 下命 밑에 石刻工은 정주목의 濟州 巫俗의 仰神 觀念과 정주목의 구실을 融合하여 上部는 「우석복」 下部는 정주목의 機能을 包括한 濟州의 印象을 질게 간직한 石像을 만들어 세운 것이라 본다.

이래서 儒敎的 思想에 젖은 官僚나 儒學者들은 이를 偶石이니 翁仲石 등으로 稱하였지만 一般大衆들은 「우석복」 또는 「돌하르방」으로 부르게 된 듯하다.

石像의 機能으로 다음 몇가지를 들 수 있다.

城門으로 近接하는 길목에서 부터 서로 마주 보게 雙으로 세워 外來者에게 州縣城의 城門이 다달아왔음을 알리는 境遇標的 機能이 있다.

城門外 굽이 도는 길목에 세워진 한 쌍의 石像 그 눈초리는 부리 부리하게 매서워 官衛的인 威嚴性을 보이게 하여 出入者로 하여금 두려움을 주어 城門을 지키는 境界 守護的 機能도 있을 을 알 수 있다.

다음은 邪氣 防禦逐出하는 超自然的 威力을 가져 呪的 機能을 發揮할 수 있다고 信仰하여졌고 盜賊과 凶氣도 防禦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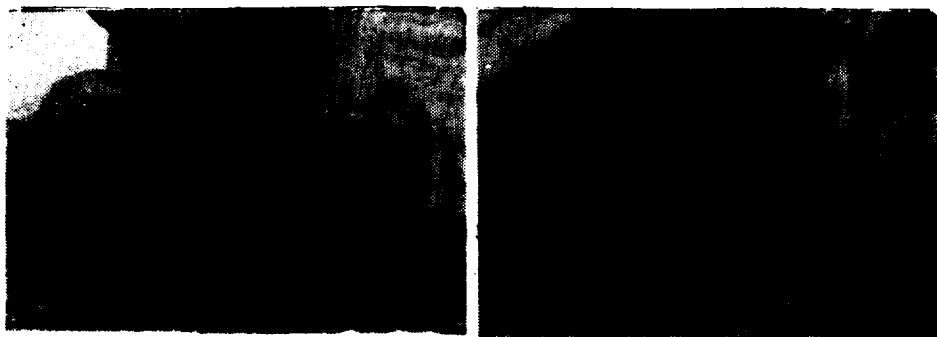
石像의 構造로는 單調하게 上部의 偶石과 下部에 基石으로 되어졌다.

濟州城 石像의 경우 平均 身長이 六尺이 넘고 基石 높이가 一尺半에 가까워 全長은 七·八尺 長身이어서 그 威壓感에 압도당한다.

基石이 原狀態로 남아있는 偶石의 台石은 單純하게 石像을 앉혔던 台石만이 아니고 一尺半의 高에 三尺四寸餘의 直徑인 基石은 前面 中央에 各 雙마다 한쪽은 口形 구멍이 파져있고 또 相對面 한쪽에는 卍形인 홈이 파져있다.

口形 구멍이 約 十八cm 正方面 깊이는 約 十四cm이고, 卍字홈은 幅이 約 十九cm, 가로가 約 四十五cm, 세로가 約 十五cm이며 가장 깊은 곳이 約 十五cm로 파여졌고, 上部 偶像 底部面에 밀착되게 基石 上部의 凹刻 깊이도 約 七cm로 정교하게 다듬어진 機能石(基石)이다.

이 基石의 構造를 綜合하여 考究하여 보면 必是 길다란 長木 한쪽 끝은 口形 홈에 맞는 口字 端部(上下가 있었음)를 먼저 쪼은 다음 다른 나머지 端을 卍字 홈에 入口에서 가로 들어가 밀 으러 내려 누르면 橫木은 단단하게 固定시킬 수 있다.



〈寫眞 2〉

위 構造를 이렇게 推測이여 읽어본바로는 濟州의 「정낭」과 아주 흡사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정낭」이 濟州民家에 出入하는 목에 걸쳐 牛馬와 外人의 出入을 防止하는것과 一致하니 정낭과 石像의 下部 基石部の 機能이 關係는 더욱 깊음을 알 수 있게 한다.

이렇듯 本 「우석목」은 濟州 「정주목」이 發展的 變形이 아닌가 하고 城門 앞 左右에 무섭게 쓰아보듯한 인상으로 彫刻하여 세운 偶像石은 「정주목」 神의 彫像으로 化하여 濟州 「우석목」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留意할 점은 정낭은 數本の 橫木을 걸쳐 出入을 遮斷했지만 이 基石에 꽂아 놓는 橫木은 路面에서 不過 몇 寸이 떨어지지 않아 과연 遮斷 機能이 있었느냐하는 의문은 拙筆者는 다음과 같이 본다.

基石도 偶石 못지않게 精巧하게 만들어 있고 機能面이 뚜렷한 點으로 보아 中間機能石(打柱木)으로 보고 다시 이 두 점 偶石과 打柱石을 엮어 놓는 커다란 臺石이 있음으로 橫木은 아마도 사람의 무릎 程度의 높이에 꽂아졌던 것이 아니었나고 보아진다.

이렇듯 것이 偶石과 基石은 歷史가 바뀌고 시대가 흘러 城門이 毀撤되는 여건 등에 依하여 近處 名所로 옮겨질 경우 偶石은 勿論 基石만을 옮겨 놓았고 그 밑이 巨臺石은 아주 큰 自然石이었거나 옮길 수 없는 巨石이어서 그대로 放置되었는게 그 陳蹟마저 없어졌지 아니한가 推斷하여 본다.

現在 남아있는 基石은 濟州牧城에 十基가 있고 旌義縣城에는 四基가 있으나 계주성의 機能石과같은 것이 아니라 座臺의 役に 不過한 基石이고 大靜에는 전혀 基石이 없는게 特異한 點이다.

V 造形の解剖

石像의 造形面을 美術解剖學的으로 分析 研究하기에 앞서 우선 三縣域의 돌하르방의 크기와 基石 有無를 比較 概括하여 보면 다음 표와 같다.

濟州 石像 規格

區分 位 置	全長	이마 길이	얼굴길이	가슴 넓이	胸腹長	腹股 長徑	감투길이 (테)	기석높이 (높이)	기 타
三姓穴 入口 東	235	13.5	44	62	145.5	68	32(10)	40(88)	
〃 西	225	16	36	60	123	70	50(12)	40(90)	
三姓穴 乾始門 東	170	14.5	30.5	39	93.5	61	31.5(12.5)		
〃 西	175	12	38.5	58	90.5	60	34(11.5)		
觀德亭 後園 北	147	11	31	43	71	55	34(11)	30(70)	
〃 南	176	13	33	48	94	57	36(9.5)	25(70)	
觀德亭 正面 北	190	19	33.5	47	103.5	61	34(12.5)	30(80)	
〃 南	205	14	34	65	120	67	37(12)	30(90)	
觀德亭 路邊 南	160	13.5	39	40	68	48	34(10)		基石이 包裝路面上에 붙임
〃 北	200	15.5	38	46	110	58	35(9.5)		〃
空 航 路 西	206	10	48	54	124	70	38(12)	37(90)	
〃 東	157	13	32	38	81	48	31(15)	27(34)	
高 永 菴 氏宅 西	133	10	35.5	42	70	60	17.5(9.5)		
市 廳 東	200	19	61.5	62	82.5	80	37(11)		
〃 東	165	14	34	55	91	66	26(8)		
濟州大學 入口 東	182	16	41	55	85	77	40(12)	38(97)	
〃 西	225	22	42	50	123	70	38(16)	27(98)	
〃 本宮 東	165	12	38	40	83	67	30(8)		
〃 西	170	13	30	37	85	67	34(10)		
KBS 放送局 南	195	15	46	60	97	75	36(8)		
〃 北	205	11	40	52	116	75	34(12)		
城邑里 東門 北西	124		34	24	68	47	22(5)		
〃 北東	129		39	27	70	48	20(5)		
〃 南東	154		41	29	85.5	55	27.5(5)		
〃 南西	132.5		37	25	75.5	46	20(3.5)		
〃 西門 西南	154		41	40	85	47	28(5)	30(65)	
〃 西北	124		37	24	37	63	24(4.5)	50(60)	
〃 東南	138		43	23.5	68	47	27(4)	30(70)	
〃 東北	137		34.5	24	75.5	45	27(4.5)	40(55)	

區分 位置	全長	이마 길이	얼굴길이	가슴 너비	胸腹長	腹股 長徑	감투길이 (테)	기석높이 (높이)	기 타
// 南門 東Ⅱ	133.5		40.5	28.5	77	48	16(3.5)		
// 東Ⅰ	174		47.5	32.5	102.5	52	24(5)		
// 西Ⅰ	149		45.5	33	81.5	50	22(4.5)		
// 西Ⅱ	153		42.5	20	84	51	26.5(5)		
保城里 入口 左Ⅰ	152.5		48	40	78.5	77	26(9)		
// 右Ⅰ	160		50	45	84	70	26(10.5)	手並合	
保城 左Ⅱ	134		40	35	70	52	24(10)		
// 右Ⅱ	159		47	40	85	60	27(9)		
保城國校入口 左	117		45	25	53	45	19(7)		
// 右	114		45	25	47	56	22(8)		
保城民官 左	119		44.5	25	55.5	48	19(6)		
// 右	142		42	40	74	61	26(6.5)		
保城 西門	120		40	30	61	40	38		
安城里 入口	132		45	35	67	40	20(8)		
保城 上洞	134		39	35	80.5	52	14.5		

크기를 一見하여 濟州牧城의 우석목은 六尺餘에 一尺三寸이 넘는 基石 위에 없으면 七尺 乃至 八尺의 巨像이고 그 다음으로는 旌義縣城의 우석목은 四尺七寸이며 가장 작은것은 大靜縣城의 것으로 四尺四寸이다.

基石은 濟州牧縣城 十個와 旌義縣城 四個는 現在 남아있으나 旌義縣의 基石은 單純한 台石에 지나지 않고 濟州牧城의 基石은 口字, 卍字形 흔이 있어 機能石(打柱石)이 되었던게 特異하게 다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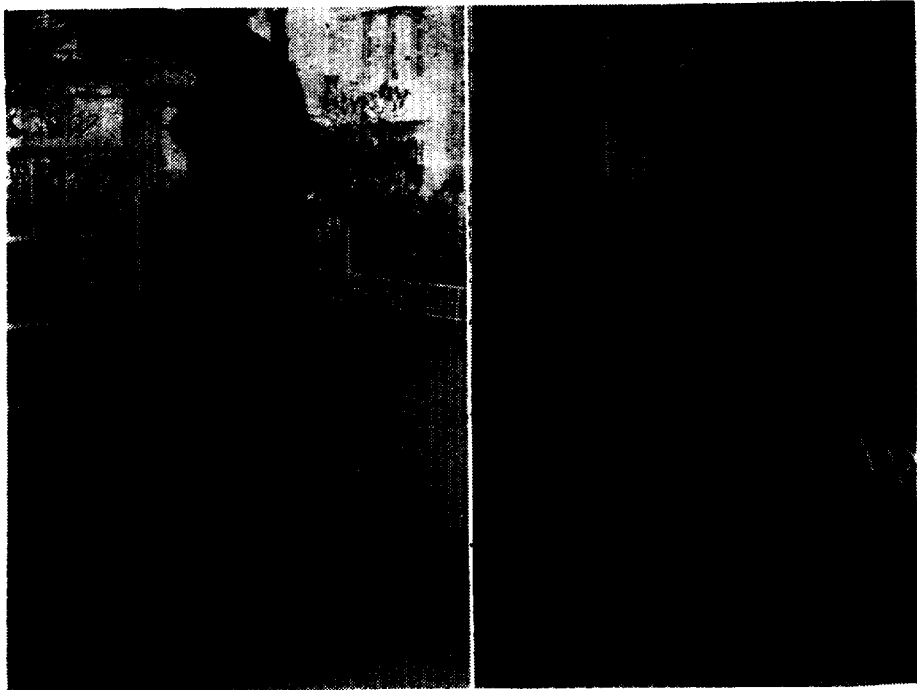
頭部는 甁거지를 눌러 써서 頭蓋骨의 狀態를 隱匿시켜 頭頂骨, 後頭隆起, 側頭骨, 前頭骨을 뚜렷하게 읽을 수 없으나 前, 側, 後頭骨과 頸部로 이어지는 線이 뚜렷한 것은 市廳 玄關 東側石像이다. 甁거지가 가장 잘 造形된 것으로는 濟州大學 本官 東側의 것으로 帽子的 테와 上部 尖端으로 오르는 線 속에 蝸線三輪이 精巧하게 彫刻되었으며 접어두는 側面 左右로 角을 두어 造成했다 (市廳 玄關 西側도 同一하다).



<高眞 3>

그리고 着帽한 모습은 顔面과 比較하여 보면 각기 다른 面相과 帽子도 端正하게 바로 쓴 石像은 없어 電光形 變化의 參差를 意的으로 잘 再現한 頭像部, 顔面과 着帽의 調和라 하겠다.

이마(前頭)가 가장 긴 石像은 觀德亭 正門 北側과 市廳 玄關 西側像으로 十一cm에 達하는 이마를 지녀 一般的으로 濟州牧 石像의 前頭들은 길고 툇칠한 이마라 하겠다. 이 뚜렷한 이마



〈寫眞 4〉

의 皺眉筋에 神經을 곤두세워 온몸에 集中力을 腦裏에다 다 모으는 듯한 부리 부리한 커다란 눈, 眉眼이라 하겠다. 눈은 淚孔臉과 外側臉이 水平으로 된 平眼이 아니고 武人形의 눈썹이 치켜올라간 커다란 눈이 부리 부리하게 뚫어질 듯 내다보고 있다.

코도 큼직하여 자루병과 같은 코, 막개 같은 코라 하듯이 顔面에는 눈과 코 그리고 皺眉筋이 特徵을 잘 나타내었다고 하듯이 코는 아주 細密하게 觀察하고 解剖 研究하여 만들어지지 않았는가 한다. 왜냐하면 鼻根, 鼻骨과 軟骨의 連結部位, 翼, 中隔, 人中等 特別히 콧대와 齶部를 잘 表現하여 불룩 불룩 거친 呼吸을 하는듯 生動感을 자아내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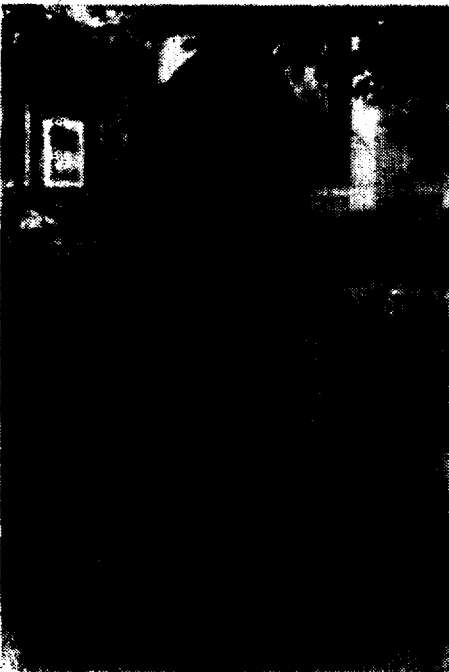
입은 大略 疎忽하게 다루었으나 放送局 二座, 市廳玄關 二座는 다 口輪筋을 意識하고 上脣과 下脣을 表現하였으나 其外는 一字形으로 써는데 不遇한 입이나 上述한 中の 市廳 東側石像 입은 口輪筋, 人中, 上·下脣, 頰筋, 頤筋 등을 잘 造成한 作品이라 보아진다.



〈寫眞 5〉



〈寫眞 6〉



〈寫眞 7〉

其外 咬筋, 笑筋, 頰筋, 顴骨筋, 上脣方形筋의 區別을 確實하게 읽을 수 없으나 顴骨弓, 楔狀骨을 意識해서 만든 作品은 放送局北側, 市廳 東側 石像 정도이다.

귀는 大概 無表情하게 楔狀骨에서 밑으로 길게 드리워져 있으므로 側面 顔部의 深度가 얇은 게 흠이지만 三姓穴 乾始門 西側, 放送局 北側, 市廳 東側 石像은 後頭部 가까이 귀를 두려고 肩部(어깨)에서 부터 意圖的으로 다르게 考案되어졌음을 알 수 있다.

市廳 玄關 東側 石像은 後頭와 後頸部(목덜미)를 잘 表現하였다.

어깨(肩)는 어느 한쪽이 오르고 내려서 크게 變化를 주어 거드름을 부리는 듯, 힘을 파시하는 듯 生동감을 집어 넣었고 活頸筋, 胸鎖乳樣



〈寫眞 8〉

筋, 肝狀腺, 僧帽筋 등은 無視 省略해 버리고 胸部에 大胸筋을 表現하여 胸部와 腹部的 區分을 짓게 하였다.

左右의 上膊은 石像의 背面에 붙여 길게 밑으로 드리웠고 前膊과 手목을 붙인 右 手은 石像의 前面腹部에 얹어졌으나 어깨가 치켜 올라간 쪽 手은 上腹에 그 反對面 手은 어깨가 처져 내린 만큼 下腹部에 얹어졌다,



〈寫眞 9〉

여기에 特異한 것은 市廳 玄關의 二座와 放送局 正門 앞 二座는 手목에 Ⅱ線이 들어가 있는 게 他와 다른點이고 良工의 彫刻 作品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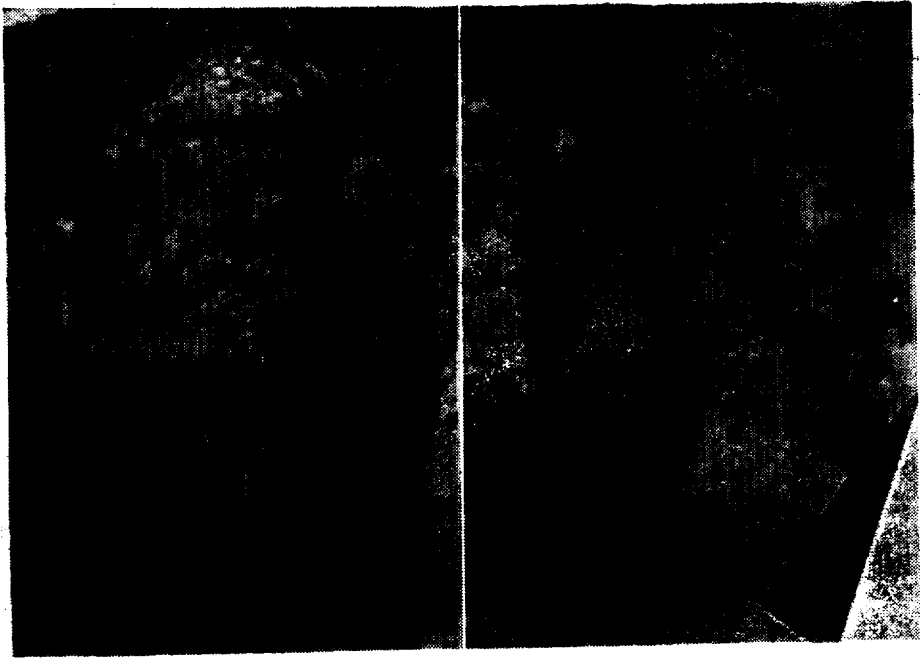
大靜의 石像은 三縣城 中 가장 矮小하고 拙劣한 편이며 平均身長이 一三四·八cm, 胸幅이 三三·六cm, 腹最長徑 五四·六cm 이며 基石이 全無한 것이 다른 점이다.

製作技法은 二尺方形, 四尺半 程度의 石柱에 等分 計劃없이 마무리로 만든 痕迹이 보인다.

머리 위에 쓴 벵것은 濟州 남박(나무박)을 뒤집어 쓴 形이고 帽子에서 턱(頤)까지의 길이와 턱에서 밑으로 身部の 길이가 約 切半이 되어 미련한 等身像으로 보이나 자세히 보면 불수룩 웃음이 터져 나올듯 한 好感이 가는 石像이다.

大靜縣城 十二座 中 南門 入口의 四座가 代表的인 石像으로 보고 이의 됨됨이를 記述하여 보면 入口 左Ⅱ인 경우 身長 一五九cm로 第一 크며 갓뚜(帽子) 길이가 二七cm 中 테의 두께가 九cm, 顔面 길이가 四七cm, 胸幅이 四十cm, 胸腹長이 八五cm, 腹最長徑이 六十cm이다.

顔面 및 頭蓋骨의 露出되는 前頭骨, 楔狀骨, 側頭骨, 淚骨, 鼻骨, 上顎骨, 口蓋骨, 下顎骨 등의 骨格을 無視하고 圓柱形 顔面에 隆起된 눈은 흡사 潛嫂들이 쓰는 水鏡과 같이 되었고 前頭와 顔面이 區分됨이 없이 鼻根으로 보여지는 點에서 차츰 窠대가 漸次 솟으며 三角柱形으로



〈寫眞 10〉

내려 断面은 三角이 된 코이다.

입언저리의 口輪筋, 頰筋, 笑筋, 頰筋도 無視된 채 입은 舟狀으로 짜어 넣기만한 程度의 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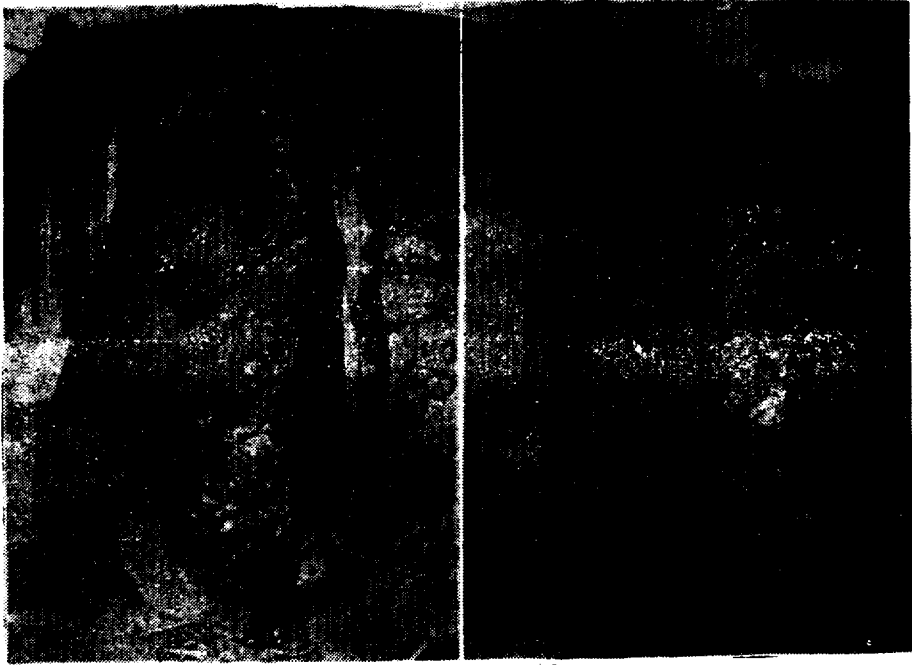
귀는 濟州縣城의 直線形 귀에 比하여 彎曲을 주어 側面 頰部 길이에 全面을 거의 채워 彫刻이 되었다.

頸部는 濟州島 全体 石像과 特異하게 다른點은 大靜縣城 南門 入口의 二座로 道服을 입고 서 있는 姿態 U字의 服裝線을 넣은게 特色이 있는 石像이다. 其中 右座의 肩部는 뚜렷하나 上膊과 前膊이 짧으며 等分이 曖昧하고 손은 前面 胸部 밑으로 五指를 가지런하게 모여 서 있는 姿態도 特色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大靜의 石像은 技巧가 전혀 들어있지 않은 純朴하기만한 古拙한 맛 그대로의 偶像이라 할 수 있는 石像이다.

旌義縣城의 石像은 그 位置가 다른 縣城의 石像에 比하여 보면 原位置에서 遠距離로 옮겨진 石像이 아님을 一見하여 알 수가 있었다.

東·西·南 三門에 各門마다 一組 四座式 城門址의 옛 터전을 지켜 서 있는데 그 크기는 平均하여 大靜보다 크다.



〈高 良 11〉

旌義縣城에서 가장 큰것은 南門 東 I 像으로 全長 一七四cm, 顔面長 四七·五cm, 胸幅 三二·五cm, 胸腹長 一〇二·五cm, 腹最長幅(徑) 五二cm, 감투길이가 二四cm로 巨像이라 할 것이다.

이 石像의 감투 二四cm에 대의 두께는 五cm, 둥근박과 같은 形을 뒤집어쓴 감투에 짧은 이마 길다란 메부리코는 顔面 全長의 三分之二를 차지하여 鼻根과 鼻骨下端部는 잘 表現하였으나 翼部와 鼻孔은 省略되었고 그 높이는 七cm로 높은 코가 되었다.

눈의 表現方法도 大靜과는 判異하게 다르고 濟州牧城의 石像과 같이 眼의 輪廓을 深刻하여 眼球를 볼록 돌어나게 하였고, 눈끝이 치켜 올려 武士形으로 處理한 점은 濟州牧城 偶像과 같다.

입언저리의 諸筋, 口輪, 上下脣筋, 頤筋, 笑筋 등을 모다 省略하여 鼻翼의 넓이만하게 一字로 짠 것이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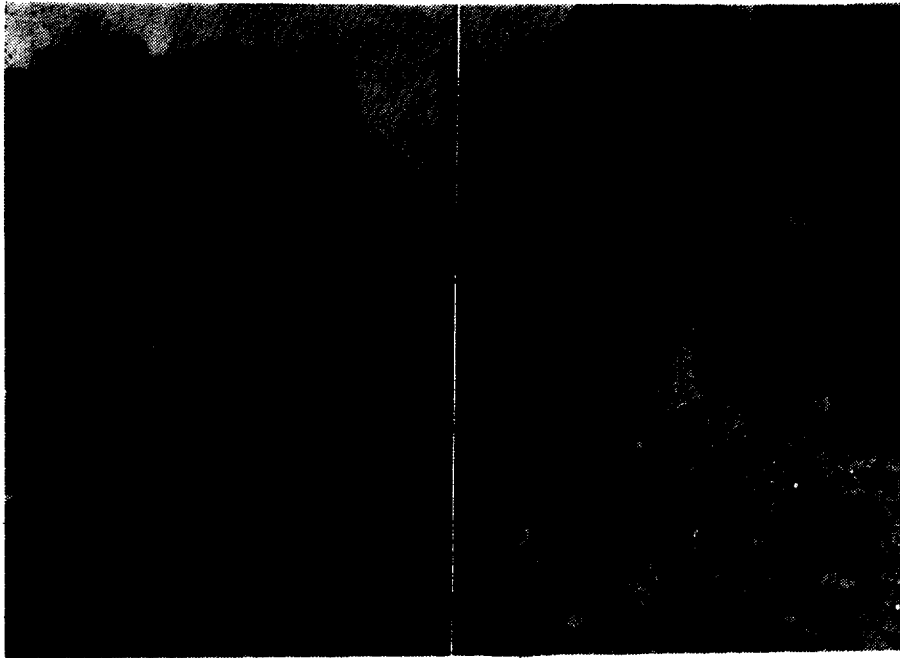
下顎骨前端과 耳下乳樣突起間은 三十二cm나 後退하여 있어 側面 顔部の 深度는 濟州石像中 가장 깊어 顴骨弓은 잘 나타나고 있는 點에 比하여 咬筋, 顴骨筋, 笑筋은 無視되고 있는 편이다.

귀의 形과 位置도 下顎乳樣突起와 頭頂骨로 連結되는 線上에 잘 갖추어 있으므로 後頭와 顴

骨部 가까이 位置하여 自然스럽고, 목은 第一頸骨과 第七頸骨을 意識하듯 背面的 處理는 좋았으나 僧帽筋, 胸鎖乳樣筋, 中斜角筋, 胛狀腺 等은 無視되어 있다.

좁은 어깨(肩)가 앞으로 傾斜를 지으며 肩峯을 잡은듯 上膊의 位置가 달라졌으나 側面 넓이(五五cm)만한 上膊, 左右는 오르고 내린것 뿐이며 前面으로는 上膊의 넓이 十cm, 前膊의 넓이 十一cm, 左側 손은 胸部에 주먹을 쥐어줬고 右側 손은 그 바로 밑에 手指를 편 손이나 全體의 等分에 比하면 아주 작은 손이 된다.

胸幅 또한 아주 좁아 三十二cm에서 胸筋 等の 筋 處理가 疎忽 없고 腹部도 마찬가지로 身 部の 處理는 아주 疎忽한 四角柱와 別 다름이 없다.



〈寫眞 12〉

VI 結 論

石像의 表情은 위에서 論述하였듯이 머리에 두툼한 감투, 길고도 좁은 이마, 부리 부리하게 야무진 눈망울, 뚜렷한 皺眉筋, 자루병과 같은 큼직한 코, 붙쭉 돌아나온 顴骨筋, 좁은 頰筋, 낮으막한 口輪筋에 一字로 無表情하게 썬입, 側頭에 길게 매달린 귀는 全體의 顔面에 강한 印象을 주게하며 약간 기우뚱하게 쳐들어 미소마저 함복 담은 모습은 익살스런 濟州石像의 얼굴

이다.

한쪽 어깨가 치켜올라가 動勢에 큰 變化를 피하면서 거드름을 피우는듯, 힘을 과시는듯, 상대를 알 보는듯한 態度는 이 石像이 지닌 멋이라 하겠다.

上膊, 下膊은 고르지 않은 어깨 左右에서 垂直으로 내려오다 치켜올린 어깨쪽 손은 胸部나 腹部上 端에 얹히고 反對편 손은 腹部下端에 주먹을 불끈 쥐고 서 있는 姿態는 문지기(守門將)로서 責任을 다하겠다는 강한 意志의 表象이라 할 것이다.

胸部와 腹部에는 別技巧를 찾아볼 수 없음은 陸地部 「장승」도 그 上端에만 人面을 彫刻하고 下部로는 自然 그대로인 狀態에 文字를 넣었듯이 本島 石像에도 다름은 없으나 胸, 腹部를 區別짓는 線, 胸筋은 은근하게 處理하였다.

이렇듯 石像은 強直하기도하고 溫柔하기도 하고 멍청하기도한...多樣한 表情은 諧謔의으로 한 石像에 담겨진 造形術은 世界 어느 到處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濟州 固有의 民俗美術品이며 濟州先住民의 歷史的인 試鍊과 自然에 適應하려는 叡智의 生活은 漸移의 進歩의 人間相을 代辯해 주고 있는 毗羅의 精神이며 이 精神을 한몸에 지니고 있는 守護神으로서 貴重한 文化 遺産이기도 하다.

現在 濟州에 남고 있는 四十五座의 石像을 比較 研究하여 보니 城門의 進入路목에 一組 四座式의 石像을 세웠고 二座 한쌍은 크기나 形態나 製作技法(工法) 등 모든 樣式이 他와 比較하여 보면 類似한 共通點이 많다.

이 共通點이 많다 하는것은 牧使 金夢奎의 荊案에 依하여 濟州三縣이 同時에 發注되었으리라 본다. 그 理由는 濟州牧城의 現市廳 앞 二座와 放送局 二座는 다른 石像에 比하여 解剖學的 造形 感覺이 越等하게 優秀한 良工으로 하여금 만들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 良工으로 하여금 三縣을 巡回 監督下에 製作에 임했다면 現在와 같은 地方의 差, 優劣의 差가 없었지 않은가 한다.

이런 點으로 봐서 石工을 選定하고 石像은 한쌍씩 二座 單位로 責任量을 期限付로 完成토록 맡겨졌던 바 色다른 石像이 形成된 것으로 보아진다.

그러므로 石工들은 周邊에서 돌을 採石하고 그 돌의 크기에 맞게 나름대로의 造形感覺에 依한 現在의 石像을 만들어냈으므로 同時에 만들어지고 同時에 세워졌던 것으로 보아진다.

石像의 造形面으로 봐서 濟州島의 古美術은 大陸의 北方行烈 文化와 島嶼的 南方行烈 文化 속에서 韓半島의 獨自의인 感覺과 稟性으로 外來 文化를 解釋하고 消化하면서 韓國의 美術의 生活 터전 위에 自然主義의 樣式을 일으킨 半島의 與件의 至大한 文化的 要素에 濟州島의 固有 信仰과 自然環境 속에서 生活手段에 依한 그들의 用具 및 其他 必要한 道具를 製作하려는 意圖는 하나의 特徵의 技法과 樣式을 낳으며 濟州島의 獨特한 色彩를 지닌 濟州의 美術을 이룩하였다 할 것이다.

— Summary —

An Anatomical Study of Dolhalubang,
the Cheju Stone Statue

Kee-sun Moon

The Cheju Stone Statues, "Dolhalubang", create a unique impression of Cheju-Do upon the minds of those who happen to see them. This impression is particularly prevalent among visitors from the mainland and from foreign countries. The Stone Statues have also attracted the attention of Korean scholars, who now find an artistic value in them and regard them as valuable objects of folklore art and cultural properties of traditional Korea.

This paper aims to be a groundwork to disclose when such types of stone statues began to emerge in Cheju-Do, how they were carved, where they were erected and why there. In order to achieve this aim, this paper also dealt with the interrelation between formative arts and social backgrounds of the Yi Dynasty, and explored their anatomical characteristics to trace the traditional artistic craftsmanship lingering in Cheju-do.